

정치기사를 쭉보다가 검찰과 언론이 한 기업 대표의 과거,배경마음대로 쓰면서 자기들 정치권력 위해서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역으로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충분히 도움이 될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 썼습니다.

제 얘기가 분명히 이득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관련자들에게까지 전달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논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쌍방울이 끌려가는것이 아닌 충분히 선제공격과 사측에 유리한 옵션들을 만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 주주나 연관자는 아닙니다. 다만 쌍방울과 김성태회장이 두 정당의 싸움에서 최소한의 손실로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깨끗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눈에 들어오게 쓴 글이 아닐수는 있지만 이 글을 읽는데 드는 5,10분의 시간으로 회사와 그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이름이나 관련된건 쭉 찾아봐야알겠지만

김성태회장쪽에서는 사외이사나 변호인등에 여당도 있고, 이재명 관련 리스크인 야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다를 김성태회장측에서 먼저 언급하면서 둘의 싸움에 저를 빼달라고 선제적으로,파격적으로 유튜브 라이브등을 통해 먼저 기자회견 등을 하는것이 손해도 없고, 언론에도,앞으로의 있을 조사에도 선택권이 생기는 일이라고,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터뷰도, 검찰조사도 아닌, 결국 정치는 국민여론이기때문에 유튜브같은것이 저급하다고 느껴질수있지만, 이미 기업입장에서 이미지등으로 잃을건 잃었고 유튜브 라이브등의 선제 기자회견 나쁘지않다고 보입니다.

검찰에게 끌려가는것이 아닌 선제공격을 하는겁니다. 이미 이렇게 김성태회장이 언론에 이런식으로 노출된 자체가 회사입장에서는 잃을만큼 잃었고, 선제 대응에 손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포인트는 쌍방울은 이재명측 회사가아니라, 한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로써 이재명측, 윤석열측 모두의 최측근과 교류를 한것뿐이다 (당연히 풀어서 깨끗하고 순수한느낌으로) 저는 쌍방울이,김성태회장이 잘못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그런건 나중의 일이고, 이 정치에 쌍방울과 김성태가 최대한 피해없이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은 쌍방울과, 김성태회장은 양쪽 정당 모두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건강하고 위법이 없는 한에서 회사이익을 위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말기를 부탁드린다고 언론에 얘기를 먼저 하는겁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현재여당 관련자들도 쌍방울 사내,사외이사등으로 있다등을 언급하면서 (자세한건 알아서 쓰면서요) 오히려 여당과의 관계를 선제적으로 광고를 하는겁니다.(절대 협박, 고의의 느낌이 없게 궁지에 몰려서 윤석열측을 끌여들여서 얘기하는 느낌이 아닌, 한기업으로서 국가 정치에 한 기업을 이용하지말아달라는 느낌으로)지금 현재 이재명쪽이랑 연관지어 범죄를 저질렀다는쪽으로 언론이 몰아가지고

있기때문에,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이억집단일 뿐이지 양쪽모두와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함에있어 네트워킹,미팅,사업적 이유 등등 이라고 (합리적이고 제대로된설명으로) 얘기하면서 반대측과도 그렇게 교류를 했다는걸 먼저 언급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양쪽정당이 싸우는꼴이 보기싫다고 생각을 하게될겁니다. 한쪽 정당과의 유착관계가 아닌 두정당모두가 관련이있다고 광고되는 자체가 변호사비 대납,북한 등으로 꽃혀있는 언론과 국민시선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인식이 된다면 검찰입장에서는 이재명쪽 문제만 수사를 할수없을것이고, 그렇게되면 윤석열쪽 문제도 수사가되어야하는데, 그렇게 됐을때가 제일 쌍방울측에 유리해보입니다. 검찰에가서 이재명을 내어줄테니 우리회사를 봐달라거나, 윤석열측 지인들을 이용해 뒤로 해결하는것보다는, 아예 공개적으로 선한느낌으로 두 정당 관련자가 우리회사에 다 있는데? 우리회사는 기업집단이지 이재명라인 아닌데? 입니다. 지금이사건은 검찰입장에서는 한기업의 법적인 잘못보다 이재명과의 연관성, 이재명 잘못을 찾기위해서 관련기업을 파는것이기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단어들을 전환시켜야합니다(변호사비대납,북한불법송금)

예를들어 선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이라고 표현을 한것이지, 기자회견이 아닌 아예 유튜브 같은 라이브방송이 좋다고봅니다. 이유는 이미 언론은 윤석열 측 입장이기에 기자들이 기사를 쓸때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안됩니다)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며 정치인들이 참 무서웠습니다.제가 태국에 있었던이유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저희회사가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무서웠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수장도 아니고, 엘리트 집단에서 자라지도 않았으며(일부러 조폭이미지를 엘리트반대를 이런식으로 무마하려고), 남들에게 피해주지않으려고 노력하며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호소하기). 저를 포함하여 쌍방울과 이하 관련 계열사들은 이익을위한 한국가의 한기업집단이지 정치집단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국민의힘당원도 아닙니다 (이렇게 일부러 양쪽정당을 언급하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해버리는겁니다)

언론에서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말하는사람인 제 변호를 맡은 000로 인해 제가 여당지지자 인것도 아니고 (일부러 윤석열쪽을 언급하는겁니다, 하지만 비판을한적도없고, 이쪽 편이라고 얘기한적도 없는겁니다, 오히려 몰랐던 국민들에게도 아, 쌍방울이 이재명 대납의혹 회사라고 알았는데 윤석열 최측근이 변호를 맡았다고? 야당국회의원이 사내이사로있다고 ? 뭐지? 이렇게 생각되게끔 선제광고로 시선을 돌리는겁니다)

이재명변호사 대납의혹에 연관된 ~~~ 등등으로인해 제가 민주당지지자 인것도 아닙니다 (양쪽 똑같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재명쪽 해명만 하면 여당지지자들의 눈에는 변명으로밖에 안보일거니까요. 일반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이유는 지금이건 정치이슈이고 정치이슈는 결국 국민의 판단에 의해 움직이니깐요)

쌍방울에 관련된 윤석열 관련자들이 왜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 (일부러 하는겁니다. 윤석열측도 관련이 있다는 광고 같은거죠, 하지만 너네쪽도 해먹었잖아! 명예훼손느낌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당당하게 선한느낌으로 얘기가되는겁니다)

변호사비대납의혹에 관한 설명 — (이것도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회사로서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한것이다 등으로)

대북송금의혹에 관한 설명 — (이쪽 얘기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핵심은, 송금증거가 있다면 송금을 한 이유는, 그 시대의 정부방향은 그쪽이었고, 한 기업으로서 참여제안을 받아 이익을 따져 참여한것이지 개인적인 선호도나, 불법청탁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으로)

을 모두 얘기하고 역으로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과거에 엘리트스러운 직업을 갖지 않았고, 평범한 생활을 하지않았던것이 (과거의 조폭생활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도 직접적으로 단어를 언급하지도 않는겁니다) 제가 그뒤에 사업을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연관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제 과거와, 저의 태국에서의 건강해보이지않는 라이프스타일로 제 개인만은 마음껏 욕하셔도 됩니다. 관련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것들을 공격하는것을 멈춰주십시오.

저의 죄는 저 혼자 받겠습니다 (어차피 관련된것이 무마되면 개인죄는 없어지고, 잘못도 받겠다고 인정하면서 선동을 멈추게 함)

저로인해 회사에 다니는 임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저와 같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저로인해 쌍방울과 그 이하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며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족, 사람을 언급해서 정신적 호소를 유도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회사가, 그외부요인들이 언론이나, 사법적으로 공격을 받는것또한, 그런 공격을 하는 것들또한 타인에게 폭력을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금전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cb발행 등으로의 기업인수,투자는 모든 상장사들이 행하는 정당한 투자활동입니다.

이로인해 정말로 잘못이있다면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그에맞는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저의과거나, 정치에이용시켜 공격하는것을 멈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역으로 너네들.국민,언론,검찰.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거 알려주기)

한 국가안에서 한 기업이 활동을 하며 정치와 정부와 아예 담을 짓고 살아갈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이 사내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관련자들을 알아서 쓰면서요), 변호사비대납의혹이라는이유로(이것도 잘 몰라요 알아서 써서요), 저희 기업을 연관짓지 말아주시길,두 양당의 싸움에서 한 중견기업을 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합리적으로 호소하면서 이재명측 한쪽이아닌, 둘다가 관련됐고, 둘의 싸움에 날 이용한다. 식으로 가면 검찰을 이재명측 조사만 할수 없으니까요)

제가봤을때, 윤석열 편에 서서 이재명을 깐다고해도(아무리 회사측피해는
줄여주기로 검찰이랑 합의를본다고해도, 이재명을 까는순간 쌍방울이 연관되었음을
인정하는것이기 때문에 회사리스크를 피할수가 어차피 없고

이재명편에 서서 윤석열을 까기엔 언론에 계속 이런식으로 언급되는 자체가
리스크이니, 아예 선제적으로 윤석열최측근들도 관련이 있다는식으로 (그쪽도
관련이 있다!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최측근이여서 의심받았다고
말하면서, 광고되고 응? 아닌데? 왜? 이런식으로 순수한척 선제광고)
얘기하는겁니다.

어차피 현재의 검찰은 검찰자체보다는 윤석열쪽의 정치인들이라고 볼수있으니
끌려가지말고 선제적으로 솔직한것처럼 대중에게 언론에게 얘기하는게 손해도 없고
앞으로의 생길일에 조금더 선택옵션이 생기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